## 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한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들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jang 3
◇보냄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j003

# 캠퍼스는 자긍심에 영향 미쳐

## 미관위한 학교측 노력 아쉬워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는 캠퍼스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학생들은 아름다운 캠퍼스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그런데 수원캠퍼스의 경우 그런 학생들의 욕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아침에 '쪽문'이라 불리는 교문을 통해 등교하면서 부터 우리들은 언상을 찌푸린다. 공사가 중단된 도로를 바라보며 강의실로 향하는것 부터가 학교에 대한 실망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또한, 국선관 앞의 운동장은 어떠한가? 다른것은 전혀 생각도 않고 그저 빈공터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실패작이 아닌가?

이외에도 우리학교에는 다른 많은 부분들이 학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도서관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 아직 도서관이 완공되지 않은것도 마음에 안드는데 공사한다고 그 앞에다 지어놓은 찌그러진 가건물들과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학교가 정말 싫어진다.

또한, 자연과학대 정면에 있는 황량한 땅은 어떠한가? 여기저기 큰 돌들이 굴러다니고 있고 흙은 아무렇게나 파헤쳐져 있다. 이곳을 보고 있노라면 여기가 정말 학교인가 하는 의심이 생긴다.

학생회관 옆에 있는 가정집들도 학교의 마관을 해치고 있다. 개인 소유라 어쩔수 없다고만 하지 학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다.

수원캠퍼스의 경우, 학교를 대표할 만한 상징물이 없다. 학교의 대문인 정문도 없고 그렇다고 마땅한 탑 하나 없다. 그저 보이는건 커다란 들뿐이다. 그저 건물만 지어놓고 '대학교'라 하는데 이래서는 도저히 학생들에게 애교심을 바라기 힘들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은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선 도서관을 완공해야 하고 그 앞에 조경을 훌륭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진입로 공사도 합의된 만큼 아무런 잡음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은 삭막하고 황량해 보이는 학교를 밝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경희인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이 정 훈**
〈중문·1〉

◇사회생활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 "직장이 아닌 직업을 선택하라"

직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자기 일생일대의 도박이다.

삶아보지 않은 삶을 예측해서 결정해야 하므로 쉽게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큰 위험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2년전 이맘때 신입사원으로서 나의 모습을 떠올려보면 왜 그리도 어색한지. 내가 겪었던 방황과 고민들이 우리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직장을 선택하는 후배들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직업을 우선적으로 결정하도록 권하고 싶다. 예를들어 '모그룹을 입사하겠다'라는 식의 발상은 대단히 위험하다. 대체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것이 평생의 자기 사회생활을 결정짓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사회에서 아무리 목적이나 의식없이 사회적 흐름속에 휩쓸리게 되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 더욱 결정을 해야 하는 곤란이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어렵게 살겠다, 나는 이런것이 잘 맞는다 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행착오와 번민을 하게 되는데 전혀 준비나 고려없이 한 선택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무의미나 무가치를 초래하기 마련인 까닭이다. 따라서 왜 그 직업, 그 직종을 선택하는지, 또 왜 해야 하는지, 잘맞는지, 잘맞지않더라도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직장을 결정하는 시점에서는 확실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좋다더라'가 아니라 '좋구나' 내지는 '그래, 그렇지'라는 확실한 분석과 판단을 요한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다. 정말 맞는 소리다. 그 기업이 일등이라고 해서 사원들에 대한 조건이 일등이라는 절대 명제는 결코 성립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직장을 선택하는 제 요건을 살펴보면 첫째, 발전성을 들 수 있다. 이때 발전이라는 개념은 그 기업의 발전만이 아닌 자기 자신의 발전도 포함한다. 그 기업의 미래성, 성장성, 근무여건 이외에도 자신의 승진과 연합, 자신의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둔째는 안정성이다. 흔히 '내가 무엇인들 못하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거대한 사회라는 조직속에서의 일개인의 무력함이란 일상적인(routine)관계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이 아니라 돌발적인 상황하에서 가장 나쁜 조건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많은 선택영역속에서 늘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져야 한다. 셋째는 보수이다. 직장생활은 사회활동의 가장 큰 부분으로서 자신의 가치실현이라는 도식적 명제 속에 구체적인 경제적 재화를 얻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대졸 초임이 얼마인가가 초미의 관심이나 각 직급 임금수준, 승진기간, 승진조건, 상여금, 기타 복리후생등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예를들어 큐응기관, 구체적으로 은행을 살펴보더라도 대졸초임이 연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상등으로 차이가 극심하다. 각 기업들의 홍보보다는 선배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제일먼저 구성원들의 관계정립 및 직장생활의 공유를 인정해야 한다. 첫인상, 처음 행동들이 그 사람을 대체로 결정짓는 서글픈 현실도 안타깝지만, 분명히 직장생활은 대학생활과 다르다. 대학생활에서는 싫은 것, 싫은사람은 피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직장생활에서는 '그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많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서로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만을 최대공약수로 공유하고자 할 수 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은 직장에서 상당한 신임지위들이 겪게 되는 첫 고민이다. 그러나 얼마만큼의 최소한의 대응은 필수적이다. 이의 원환한 관계처리가 어려우면 고립되고 만다. 따라서 자신을 인위적으로 표현하기 보다는 직장생활에서의 자기모습을 나름대로 정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직장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를 권하고 싶다. 이 많은 시람들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많은 요인들 중에서 남과 다른 실력과 전문성은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당위적 전제이자 기본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입학후의 생활중에 '적당히'라는 단어가 대단히 큰 매력으로 받쳐주었으나 직장에서도 'NO'가 아니라 'NEVER'이다. 직장생활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늘 임상적으로 반복적인 생활속에 젖거나 흐르기 쉽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조차 인식못하기 때문에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차피 자신의 삶은 자신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남과 같은 상태로 남과 다른 무엇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모순인가. 항상 남보다 먼저 준비하고 하나 더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박 경 모**
〈정외과졸·한미은행 근무〉

# 朔風

옛달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이 출간되어 세인의 입을 기쁘게 해주었다. 남·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그후 남·북이 합심하여 일본과 벌이는 전쟁의 이야기, 일본의 무인도로 떨어지는 한국의 핵미사일로 인해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고 통일의 서막이 올린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상 전쟁이 있다. 모 스포츠 신문에 연재되는 그 만화의 제목은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군 수뇌부는 북한이 선제공격을 해올 경우 방어는 물론 평양·원산에 북수부를 침투시켜 2주일안에 평양을 함락시키는 작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신속전개억제전력 패키지 구성도 완료되었다고 답하고 있으며 주식도 미국 언론의 위기설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진지 것일까, 아니면 미국 언론의 위기설 전파에 다른 속뜻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오히려 쉽게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남발'.

마치 효종의 북벌을 연상케 하는 제목아래 한국은 일본과의 전쟁을 벌인다. 이러한 소설과 만화는 '뜻있는(?)' 식자들에게는 허황되고 정신나간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비춰질 것이다. 국제정세와 세계평화를 위한 인류의 대행진에서 떨어져 혼자서 칼을 들고 설치려는 '아이의 투정'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긴 미국의 저명한 잡지와 신문인 '뉴스위크'와 '워싱턴 포스트'의 "만일 북한이 남침을 감행한다면 2주안에 한국의 방어선을 돌파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할지도 모른다고 91년 한 보고서에 되어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보면 그러한 생각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안보의식의 경우 적어도 정부차원의 해이란 있지도 않다.

올해들어 문민정부 아래서 구속된 '시국사범'은 총 1백20명으로 아직도 우리나라의 앙심다수 3백59명에 달한다. 그중에는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노인도 포함되어있다.

또한 열차전 안기부에서 사회주의 혐의를 추궁하는 세력을 검거했다고 발표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이외의 사상에 대해서는 '강경한'나라이다.

그렇다면 계속되는 '한반도 위기설'의 배후는 무엇일까. 미국 언론이 그런 정보를 계속 흘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혹자는 그것이 탈냉전 시대에 그 힘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의 군과 방위사업체의 전략이라 논하며, 북한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한국 정부에 던지는 미국의 '압력'이라 하기도 한다.

그 어느 쪽이든 한반도 위기설은 '미국의 이익'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미국은 우리의 혈맹이고 우방인데, 설마…'하고 생각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냉혹한 것이고 우방·혈맹도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는 하루 아침에 적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40여년을 쫓겨살아야 했던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그것을 반영해 주지 않는가.

# 미국은 위기 유포를 중단하라

문제는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위정자들이 지나치게 미국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그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에 기인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한·일간의 전쟁은 한국의 승리로 끝났고, '남발'에서는 한장 총력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단지 몇사람의 상상력이 아닌, 우리나라가 그 어느 나라의 침략을 받더라도 극복해 낼수있는 역량이 절실히 생각된다.

천리를 가는 한 짐을안양,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부, 국민들이 믿치고, 믿고 따르도록 하는 정부의 모습을 갈술년 원단에 기대해 본다.

(落兒)

# 책에 둘러싸여도 표지만 보는 생활

## 계획있는 독서로 풍요한 삶 소망

만남에도 여러종류가 있을 것이다. 책과의 만남은 중요하다고 본다. 나는 현재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니 이점에서는 행운아 인지 모른다. 올해도 나이 하나 또 먹는다. 쏠데없이 시간만 낭비해가며 세월만 보내니 안타깝다. 무언가 올해 부터는 시간만 보내지말고 우선 한가지 계획을 세워 실천해야 겠다. 나의 친구가 언제가 필자 모르지만 늦게나마 올해부터 독서할 능력이 있을때까지 평소 읽고 싶은 책들을 모두 읽기 시작하는 것이다. 흔히들 내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인사치레가 책많이 읽어서 좋겠다고 한다. 사실 나는 책을 많이 본다. 그것도 실컷본다. 그러나 내용은 못보지만 겉표지는 많이 본다는 말이다.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은 하루에도 수백권 한달에 수천권 일년이면 수만권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이 무슨 소용인가 한권이라도 제대로 봐야지 말이다. 그러면 왜 못 읽고 읽어 보는 것이 아니라 반문해 본다. 시간이 없어서라고 말한다면 정말 나의 양심에 찔리는 얘기다. 나의 나태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그동안 제대로 읽지도 않으면서 욕심은 있어서 도서정리, 대출, 반납할때마다 나름대로 수첩에다 읽고 싶은 책들을 그때마다 적어 놓은것이 꽤나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읽으려고 개인적으로 사 모은 책들이 나의집 서가에 제법 꽂혀 있다. 이 책들은 내가 읽어줄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만일 이책들을 읽지 않고 그냥 죽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생각해본다. 남들은 나를 보고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여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좋겠다고 부러워들 하는데 정작본인은 그 많은 시간을 술에 찢어 헛되이 보내고 말았다. 이제는 앞으로의 인생을 그냥 보내지 않고 수첩에 메모된 도서관 서가에 있는 책들과 접에 있는 책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읽어서 나의 독서 의욕을 충족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하였으면 한다. 이것이 다만 나의 희망사항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김 성 진**
〈중앙도서관 개가 열람실〉

## 발전기금 접수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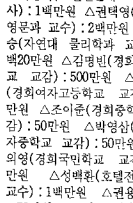
개인(교수, 직원, 학생, 동문), 단체(직장, 동문회, 동아리, 학생회) 누구나 액수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하며 기금접수는 온라인 계좌 또는 직접 출연할 수 있다.

국민은행 : 010-01-0618-642
신탁은행 : 17301-2710-209
농 협 : 031-01-396711
우 체 국 : 012336-0025556
(예금주는 각 계좌별 공히 '경희대학교')

(기금접수에 관한 문의는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961-0025·6)로 문의바람)

# 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 경희의료원 직원일동 2억8천여만원



**최 종 윤**
〈선일상선 상무이사·물리학 68년 졸〉

△이철주(기획과 직원) : 1백만원 △이영재(ㅇ) : 50만원 △윤덕보(ㅇ) : 3백만원 △서규홍(ㅇ) : 2백만원 △조항순(ㅇ) : 2백만원 △최황규(ㅇ) : 2백만원 △전용준(ㅇ) : 1백만원 △이규영(전산과 직원) : 10만원 △이승엽(ㅇ) : 60만원 △김태호(ㅇ) : 60만원 △권오관(ㅇ) : 50만원 △이원태(ㅇ) : 10만원 △오현수(ㅇ) : 30만원 △유춘복(ㅇ) : 50만원 △이용복(ㅇ) : 1백만원 △박종근(ㅇ) : 1백만원 △한상조(ㅇ) : 1백만원 △이열원(ㅇ) : 2백만원 △박희주(감수과 직원) : 2백만원 △홍성승(ㅇ) : 1백만원 △오건영(감사실 직원) : 1천만원 △이응세(총무과 직원) : 3백만원 △홍사혁(ㅇ) : 2백만원 △문용남(ㅇ) : 1백50만원 △조복수(ㅇ) : 1백만원 △왕홍관(ㅇ) : 1백만원 △김현주(ㅇ) : 50만원 △국준호(ㅇ) : 1백만원 △이경덕(ㅇ) : 1백50만원 △염덕기(ㅇ) : 1백만원 △김용길(ㅇ) : 50만원 △주창균(ㅇ) : 50만원 △남재룡(ㅇ) : 50만원 △신현우(ㅇ) : 50만원 △김준태(ㅇ) : 50만원 △이홍범(ㅇ) : 50만원 △송광용(ㅇ) : 50만원 △장도상(ㅇ) : 50만원 △유철현(ㅇ) : 50만원 △성준용(ㅇ) : 50만원 △이강석(ㅇ) : 50만원 △오관철(ㅇ) : 50만원 △구자철(ㅇ) : 50만원 △이찬길(ㅇ) : 50만원 △손재관(ㅇ) : 50만원 △김부열(ㅇ) : 50만원 △손홍명(ㅇ) : 50만원 △이진행(ㅇ) : 50만원 △신상득(ㅇ) : 50만원 △서필훈(ㅇ) : 50만원 △이정범(ㅇ) : 50만원 △한선일(ㅇ) : 50만원 △박용남(ㅇ) : 50만원 △장태규(ㅇ) : 50만원 △원유진(ㅇ) : 50만원 △박윤근(ㅇ) : 50만원 △양정원(ㅇ) : 50만원 △조영현(ㅇ) : 50만원 △양덕환(ㅇ) : 50만원 △구대서(ㅇ) : 50만원 △백명근(ㅇ) : 50만원 △김현수(ㅇ) : 50만원 △강대혁(ㅇ) : 50만원 △민경환(ㅇ) : 50만원 △김진구(ㅇ) : 50만원 △조성수(ㅇ) : 50만원 △김종성(ㅇ) : 50만원 △김인준(ㅇ) : 50만원 △엄달현(ㅇ) : 50만원 △김영진(ㅇ) : 50만원 △김동철(ㅇ) : 20만원 △최영재(ㅇ) : 30만원 △윤동규(ㅇ) : 30만원 △이은규(ㅇ) : 50만원 △함춘경(ㅇ) : 30만원 △오철록(ㅇ) : 50만원 △정덕병(ㅇ) : 30만원 △김일수(ㅇ) : 30만원 △김두봉(ㅇ) : 50만원 △김성훈(ㅇ) : 20만원 △이상민(ㅇ) : 20만원 △문철재(ㅇ) : 20만원 △권오봉(ㅇ) : 20만원 △권용기(ㅇ) : 50만원 △이홍구(ㅇ) : 20만원 △김재국(ㅇ) : 30만원 △안홍영(ㅇ) : 20만원 △윤원중(ㅇ) : 50만원

△김영주(마음금고) : 3백만원 △심규태(인사과직원) : 3백만원 △김익화(ㅇ) : 2백만원 △장근영(ㅇ) : 2백만원 △김경남(ㅇ) : 1백만원 △윤태상(ㅇ) : 2백만원 △이규훈(ㅇ) : 1백50만원 △김현주(ㅇ) : 1백만원 △김정(ㅇ) : 1백만원 △송영철(구매과직원) : 3백만원 △김영일(ㅇ) : 2백만원 △정창국(ㅇ) : 1백50만원 △이달수(ㅇ) : 1백50만원 △김윤호(ㅇ) : 1백50만원 △심규향(ㅇ) : 1백만원 △문동복(ㅇ) : 1백만원 △손태영(ㅇ) : 1백만원 △조윤형(ㅇ) : 50만원 △이수경(ㅇ) : 10만원 △강유선(영양과직원) : 2백만원 △이성구(ㅇ) : 1백만원 △안금자(ㅇ) : 1백만원 △백미연(ㅇ) : 1백만원 △최선혜(ㅇ) : 1백만원 △김경옥(ㅇ) : 1백만원 △김재일(ㅇ) : 1백만원 △우미혜(ㅇ) : 1백만원 △이정화(ㅇ) : 1백만원 △박현미(ㅇ) : 50만원 △김기정(원부1과직원) : 1백만원 △김이수철(ㅇ) : 2백만원 △최영진(ㅇ) : 1백만원 △유명재(ㅇ) : 1백만원 △권영달(ㅇ) : 1백만원 △위옥환(ㅇ) : 1백만원 △신건재(ㅇ) : 1백만원 △최덕원(ㅇ) : 1백만원 △주재황(ㅇ) : 2백만원 △이준희(ㅇ) : 50만원 △박춘기(ㅇ) : 50만원 △박재우(ㅇ) : 2백만원 △길준호(ㅇ) : 50만원 △김철원(ㅇ) : 10만원 △서석윤(ㅇ) : 1백만원 △배행규(ㅇ) : 50만원 △신영균(ㅇ) : 3백만원 △김기택(ㅇ) : 3백만원 △고재성(ㅇ) : 3백만원 △최태영(원무2과직원) : 1백만원 △원영철(ㅇ) : 90만원 △이용희(ㅇ) : 1백만원 △탁기천(ㅇ) : 1백만원 △과성용(ㅇ) : 1백만원 △이종훈(ㅇ) : 1백만원 △김익환(ㅇ) : 1백만원 △신현우(ㅇ) : 50만원 △정종해(ㅇ) : 90만원 △김혜숙(ㅇ) : 1백만원 △김기덕(ㅇ) : 1백만원 △최지원(ㅇ) : 50만원 △박용규(ㅇ) : 50만원 △최승룡(ㅇ) : 50만원 △김은숙(ㅇ) : 50만원 △유진숙(ㅇ) : 50만원 △이혜자(ㅇ) : 50만원 △임안자(ㅇ) : 50만원 △김순례(ㅇ) : 50만원 △이유정(ㅇ) : 30만원 △김남주(ㅇ) : 30만원 △조병문(ㅇ) : 1백만원 △김용식(ㅇ) : 1백만원 △김은용(ㅇ) : 50만원 △박노연(ㅇ) : 50만원 △김영권(ㅇ) : 50만원 △장덕용(ㅇ) : 50만원 △김성태(ㅇ) : 1백만원 △김용순(ㅇ) : 1백만원 △안일영(ㅇ) : 50만원 △이현류(ㅇ) : 50만원 △김종현(ㅇ) : 1백만원 △함영균(ㅇ) : 2백만원 △윤태권(ㅇ) : 1백만원 △한기석(ㅇ) : 1백만원 △안대만(ㅇ) : 1백만원 △박일병(ㅇ) : 50만원 △이정민(ㅇ) : 1백만원 △신용호(ㅇ) : 2백만원 △심상국(ㅇ) : 2백만원 △김윤길(ㅇ) : 2백만원 △손종구(관리과직원) : 1백만원 △서전대(ㅇ) : 50만원 △박동학(ㅇ) : 50만원 △장계근(ㅇ) : 50만원 △윤우순(ㅇ) : 1백만원 △송정님(ㅇ) : 50만원 △최이순(ㅇ) : 1백만원 △김기풍(ㅇ) : 1백만원 △정창열(ㅇ) : 1백만원 △곽경분(ㅇ) : 50만원 △이영순(ㅇ) : 50만원 △권창준(ㅇ) : 1백만원 △김영민(ㅇ) : 1백만원 △김재동(ㅇ) : 50만원 △김선섭(ㅇ) : 50만원 △박영숙(ㅇ) : 50만원 △정길원(ㅇ) : 3백만원 △박신자(호텔전문대 교수) : 2백만원 △이영남(ㅇ) : 1백20만원 △정청송(ㅇ) : 20만원 △김성일(경희상사 대표, 행정학과 20회졸) : 50만원 △이세영(경희여중 연구주임, 행정학과 16회졸) : 2백40만원 △김천성(ㅇ) : 2백만원 △박종현(ㅇ) : 1백만원 △이경희(교육대학원 전임강사) : 1백만원 △권태영(문리대 영문과 교수) : 2백만원 △신규승(자연대 콜리학과 교수) : 1백20만원 △김명빈(경희고등학교 교감) : 500만원 △박용수(경희여자고등학교 교감) : 50만원 △조이준(경희중학교 교감) : 50만원 △박영삼(경희여자중학교 교감) : 50만원 △이의영(경희국민학교 교감) : 50만원 △성백화(호텔전문대학교수) : 1백만원 △권용주(ㅇ) : 50만원 △권오주(타워호텔 이사, 총지배인-경영대학원졸) : 1백80만원 △신봉승(한국역사탐학 연구소 대표, 국문과 9회졸) : 30만원 △이영주(고황재단 직원) : 50만원 △김성진(서울 도서관 참고열람주임) : 1백만원 △이성희(서울 도서관 직원) : 50만원 △신영철(롯데화재 명금사대표, 사회대 경영과졸) : 20만원 △김성일(경희상사 대표, 행정학과 20회졸) : 50만원 △이세영(경희여중 연구주임, 행정학과 16회졸) : 50만원 △성숙희(비서실 직원) : 1백20만원 △김정애(문리대 영문과 교수) : 2백만원 △전종득(문리대 수학과 교수) : 3백만원 △노수현(경희국민학교 서무과장) : 50만원 △서문길(경희여자고등학교 서무과장) : 50만원 △손경훈(ㅇ) : 50만원 △임종철(대전직할시장, 정외과 21회졸) : 1천만원 △익명 : 5백만원 △안시규(경쟁대경영학과 교수) : 2백만원 △신민규(한의과 대학교수) : 1백20만원 △김중현(염광여상 사무처장, 동문) : 10만원 △정기수(서울 총무과 직원) : 7십2만원 △안규석(한의과대학 교수) : 1백20만원 △이경희(사대 교직과 교수) : 2백만원 △최병진(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이범석(공대 화학공학과 교수) : 1백20만원 △김성수(ㅇ) : 1백20만원 △류승훈(ㅇ) : 1백20만원 △이용택(ㅇ) : 1백20만원 △서진태(의대의학과 교수) : 1백50만원 △김종근(광화문세무소 소장, 법13회졸) : 5백만원 △ 최주(의대 외학과 교수) : 1백20만원 △김병진(법대 행정학과 교수) : 3백만원 △남정순(서울 관리과 직원) : 1백만원 △이청희(부총장실 직원) : 2백만원 △성희구(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정외10회졸) : 5백만원 △손종순(서울학생처 직원) : 50만원 △김연종(평화복지대학원 과장) : 1백50만원 △김동욱(평화복지대학원 주임) : 1백50만원 △김경수(ㅇ) : 1백20만원 △윤정주(ㅇ) : 1백20만원 △남영수(평화복지대학원 직원) : 7십2만원 △안연희(ㅇ) : 60만원 △박영철(평화복지대학원 기사) : 80만원 △윤창호(ㅇ) : 70만원 △지용대(ㅇ) : 90만원 △김효식(ㅇ) : 60만원 △정인용(평화복지대학원 조리사) : 60만원 △김인점(서울 학생처 직원) : 1백만원 △장평정(ㅇ) : 50만원 △한상백(ㅇ) : 50만원 △익명 : 1백50만원 △전동휴(경쟁학과 교수) : 1백80만원 △장의태(ㅇ) : 1백80만원 △김홍식(ㅇ) : 1백80만원 △이 선(ㅇ) : 1백80만원 △박종국(ㅇ) : 1백20만원 △박우성(ㅇ) : 1백80만원 △최경석(문리대 물리학과 교수) : 1백만원 △김광주(의대 간호학과 교수) : 5백만원 △김명숙(서울 보건소 간호사) : 1백만원 △유건호(문리대 물리학과 교수) : 1백20만원 △김진일(의대 의학과 교수) : 2백만원 △이호자(문리대 생물학과 교수) : 1백50만원 △박병호(문리대 교무주임) : 1백20만원 △김태만(문리대 물리학과 교수) : 2백만원 △손두옥(체과대 체육학과 교수) : 2백만원 △서재균(ㅇ) : 3백만원 △장동원(ㅇ) : 2백만원 △윤우상(ㅇ) : 2백만원 △김승일(ㅇ) : 2백만원 △유재춘(ㅇ) : 2백만원 △박영전(ㅇ) : 1백50만원 △김형진(ㅇ) : 1백50만원 △김경지(체과대 태권도학과 교수) : 2백만원 △방영진(ㅇ) : 2백만원 △최형철(ㅇ) : 2백만원 △전익기(체과대 전임강사) : 1백50만원 △홍함표(서울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법10회졸) : 1백만원 △조결자(의대 간호학과 교수) : 3백만원 △정민석(문리대 화학과 교수) : 1백만원 △이기동 : 2백만원 △선양태(공대 기계공학과 교수) : 1백50만원 △이경원(ㅇ) : 1백50만원 △이경원(ㅇ) : 2백만원 △김일원(ㅇ) : 2백만원 △우혜경(ㅇ) : 1백만원 △정수자(ㅇ) : 1백만원 △김수현(교육대학원 직원) : 2백만원 △이인촌(ㅇ) : 1백만원 △강성희(ㅇ) : 1백만원 △조선미(외학도서실직원) : 50만원 △김기홍(ㅇ) : 1백만원 △김정진(치과행정실직원) : 50만원 △박세철(ㅇ) : 1백50만원 △임현숙(소아치과직원) : 1백만원 △김기한(시내한방병원) : 1백만원 △김효신(비상계획과직원) : 1백만원 △최수남(ㅇ) : 2백만원 △구종대(제2의료원직원) : 2백만원 △김숙녕(간호부직원) : 1백만원 △윤해동(ㅇ) : 1백만원 △손인순(ㅇ) : 1백50만원 △심상숙(ㅇ) : 1백만원 △장효숙(ㅇ) : 1백만원 △위명주(ㅇ) : 1백만원 △문례순(ㅇ) : 1백만원 △김원숙(ㅇ) : 1백만원 △이혜숙(ㅇ) : 1백만원 △박순희(ㅇ) : 1백만원 △박원숙(ㅇ) : 1백만원 △방정숙(ㅇ) : 1백만원 △이혜진(ㅇ) : 1백만원 △최은선(ㅇ) : 1백만원 △김희옥(ㅇ) : 1백만원 △오희석(ㅇ) : 50만원 △김병은(ㅇ) : 50만원 △계명선(ㅇ) : 1백만원 △공성진(ㅇ) : 1백만원 △구민자(ㅇ) : 1백만원 △이숙자(ㅇ) : 1백만원 △곽화순(ㅇ) : 1백만원 △백혜선(ㅇ) : 1백만원 △이금남(ㅇ) : 1백만원 △양승혜(ㅇ) : 1백만원 △공송심(ㅇ) : 1백만원 △장정희(ㅇ) : 1백만원 △진인옥(ㅇ) : 1백만원 △박혜선(ㅇ) : 1백만원 △이만숙(ㅇ) : 1백만원 △박만자(ㅇ) : 1백만원 △박경자(ㅇ) : 1백50만원 △정승희(ㅇ) : 1백50만원 △원경애(ㅇ) : 1백50만원 △조미자(ㅇ) : 1백50만원 △김채옥(ㅇ) : 1백50만원 △서수경(ㅇ) : 2백만원 △김병은(ㅇ) : 2백만원 △전영진(ㅇ) : 1백50만원 △이경원(ㅇ) : 3백만원 △정숙자(ㅇ) : 2백만원 △김일원(ㅇ) : 2백만원 △우혜경(ㅇ) : 1백만원 △김수현(ㅇ) : 1백만원 △김수현(ㅇ) : 1백만원 △신양섭(의무기록실 직원) : 2백만원 △이인촌(ㅇ) : 1백만원 △강성희(ㅇ) : 1백만원 △조선미(외학도서실직원) : 50만원 △김기홍(ㅇ) : 1백만원 △김정진(치과행정실직원) : 50만원 △박세철(ㅇ) : 1백50만원 △임현숙(소아치과직원) : 1백만원 △김기한(시내한방병원) : 1백만원 △김효신(비상계획과직원) : 1백만원 △최수남(ㅇ) : 2백만원 △구종대(제2의료원직원) : 2백만원

이상 11월13일부터 12월27일까지의 접수내역임.